

---

# 부록

1. 한국은행 조직도
2. 금융통화위원회의 주요 의결 및 논의사항
3. 경제일지
4. 부문별 담당 부서 및 집필자



# 1. 한국은행 조직도 (2019년 12월 31일 현재)



주: 1) 부산, 대구경북, 광주전남, 전북, 대전충남, 강원, 인천, 제주, 경기, 경남, 강남본부 2) 부산, 대구경북, 광주전남, 대전충남, 강원, 제주, 경기본부 3) 목포, 전

스크팀, 대외협력팀, 조직관리팀, 예산회계팀
역경제팀
규팀
팀(정보자료반), 커뮤니케이션운영팀(사료반), 뉴미디어팀, 화폐박물관팀
제교육운영팀
호팀(개인정보보호반), 품질관리팀, 전산운영부(회계결제시스템팀, 경영시스템팀(IT지원반), 정책시스템팀, 데이터분석팀), 전산 버팀, 통신팀)
원반), 급여후생팀, 노사협력팀(열린상담반), 경리팀
영팀, 조달관리팀
영팀, 연수지원팀, 교수팀
석팀, 거시재정팀, 국제무역팀, 고용분석팀, 물가분석부(물가동향팀, 물가연구팀), 거시모형부(전망모형팀, 모형연구팀), 국제경제 유럽경제팀, 아태경제팀, 중국경제팀)
터통계연구반), 통계조사팀, 통계정보팀(ECOS재구축반), 금융통계부(금융통계팀, 자금순환팀, 국제수지팀, 국외투자통계팀, 기업 민(국민소득총괄팀, 지출국민소득팀, 투입산출팀, 국민B/S팀, 물가통계팀)
리스크팀, 안정분석팀, 금융규제팀(금융안정정보반), 금융시스템분석부(은행분석팀, 비은행분석팀), 금융안정연구부(금융안정연 팀)
터링반), 일반은행1팀, 일반은행2팀, 특수은행팀
획팀, 정책분석팀, 정책협력팀, 정책연구부(통화신용연구팀, 정책제도연구팀)
영팀, 자금시장팀, 금융시장연구팀, 자본시장부(채권시장팀, 주식시장팀)
제협력반), 결제연구팀, 결제운영팀(지급결제개선반), 결제업무팀, 결제감시부(결제안정팀, 결제리스크팀), 전자금융부(전자금융 사팀(디지털혁신연구반))
획팀, 화폐수급팀(화폐수급지원반), 화폐관리1팀, 화폐관리2팀, 화폐연구팀
계팀, 외환시장팀, 국제금융부(자본이동분석팀, 국제금융연구팀), 외환업무부(외환심사팀, 외환건전성조사팀, 외환정보팀)
코푸르트, 동경, 런던, 북경(홍콩, 상해)
구반), 국제기구팀, 지역기구팀, 금융협력팀, 교류협력부(대외교류팀, 지식협력팀)
획팀, 리스크관리팀, 위탁1팀, 위탁2팀), 투자운용부(운용전략팀, 정부채1팀, 정부채2팀, 회사채팀, 자산유동화채팀), 운용지원부 스팀팀)
화연구실, 국제경제연구실, 거시경제연구실, 미시제도연구실, 북한경제연구실
대전충남, 충북, 강원, 인천, 제주, 향, 강남
총무팀 <sup>1)</sup> , 기획조사부(기획금융팀, 경제조사팀 <sup>2)</sup> , 기획조사팀 <sup>3)</sup> , 업무팀, 화폐관리팀 <sup>4)</sup>
력반), 경영관리감사팀, 정책현업감사팀, 외환국제감사팀, 조사통계감사팀, 전산정보감사팀

## 2. 금융통화위원회의 주요 의결 및 논의사항

### 차례

#### (1) 통화신용정책 방향

◇ 통화정책방향 (2019년 1월 24일)	114
◇ 통화정책방향 (2019년 2월 28일)	114
◇ 통화정책방향 (2019년 4월 18일)	115
◇ 통화정책방향 (2019년 5월 31일)	116
◇ 통화정책방향 (2019년 7월 18일)	117
◇ 통화정책방향 (2019년 8월 30일)	118
◇ 통화정책방향 (2019년 10월 16일)	119
◇ 통화정책방향 (2019년 11월 29일)	119
◇ 2020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 (2019년 12월 26일)	121

#### (2) 통화신용정책업무 주요 내용

◇ 2019년도 한국은행의 대정부 일시대출금 한도 및 대출조건 결정(2019년 1월 17일)	128
◇ 「한국은행의 금융기관대출규정」 개정 (2019년 8월 30일)	128
◇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 결정 (2019년 8월 30일)	129

#### (3) 금융안정회의 주요 내용

◇ 「금융안정 상황점검」 주요 논의 내용 (2019년 3월 28일)	130
◇ 「금융안정보고서(2019년 6월)」 주요 논의 내용 (2019년 6월 20일)	132
◇ 「금융안정 상황점검」 주요 논의 내용 (2019년 9월 26일)	134
◇ 「금융안정보고서(2019년 12월)」 주요 논의 내용 (2019년 12월 26일)	136

## (1) 통화신용정책 방향

### ◇ 통화정책방향

(2019년 1월 24일, 제2차)

-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1.75%)에서 유지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다.
- 세계경제는 성장세가 다소 완만해지는 움직임을 나타내었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금년 들어 미 연준의 정책금리 인상 속도 조절 가능성, 미·중 무역협상 진전 기대 등으로 그간 확대되었던 변동성이 다소 축소되었다. 앞으로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은 보호무역주의 확산 정도,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 브렉시트 관련 불확실성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
- 국내경제는 설비 및 건설투자의 조정이 이어졌으나 소비와 수출의 증가세가 지속되면서 대체로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세를 이어간 것으로 판단된다. 고용 상황은 12월 취업자수 증가규모가 상당폭 축소되는 등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앞으로 국내경제의 성장흐름은 지난해 10월 전망 경로를 소폭 하회하겠지만 정부지출 확대 등으로 잠재성장률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성장세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 소비자물가는 석유류가격 하락, 농축수산물가격 상승폭 축소 등으로 1%대 초반으로 오름세가 둔화되었다. 근원인플레이션율(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은 1%대 초반 수준을, 일반인 기대인플레이션율은 2%대 중반 수준을 나타내었다. 앞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당분간 1% 수준에서 등락하다가 점차 높아져 하반기 이후 1%대 중반

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근원인플레이션율도 완만하게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 금융시장은 지난해 12월 중 변동성이 확대되었다가 금년 들어서는 대체로 안정된 모습을 보였다. 주가는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로 하락한 후 미·중 무역분쟁 완화 기대 등으로 반등하였으며, 장기시장금리는 하락 후 소폭 등락하였다. 원/달러 환율은 좁은 범위 내에서 등락하면서 안정세를 보였다. 가계대출은 증가규모가 축소되었으며, 주택가격은 둔화세가 이어졌다.
-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성장세 회복이 이어지고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다. 국내경제가 잠재성장률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성장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당분간 수요 측면에서의 물가상승압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므로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이다. 이 과정에서 완화정도의 추가 조정 여부는 향후 성장과 물가의 흐름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판단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주요국과의 교역여건, 주요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변화, 신흥시장국 금융·경제상황, 가계부채 증가세, 지정학적 리스크 등도 주의깊게 살펴볼 것이다.

### ◇ 통화정책방향

(2019년 2월 28일, 제4차)

-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 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1.75%)에서 유지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다.
- 세계경제는 성장세가 다소 완만해지는 움직임을

지속하였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미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 조절 및 미·중 무역협상 진전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면서 전월의 변동성 축소 흐름이 이어졌다. 앞으로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은 보호무역주의 확산 정도,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 브렉시트 관련 불확실성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

□ 국내경제는 설비 및 건설투자의 조정이 이어지고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었지만 소비가 완만한 증가세를 지속하면서 잠재성장률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성장세를 이어나갈 것으로 판단된다. 고용 상황은 취업자수 증가규모가 소폭에 그치는 등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앞으로 국내경제의 성장흐름은 지난 1월 전망경로와 대체로 부합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투자 조정이 지속되겠으나 소비가 증가 흐름을 이어가고 수출과 설비투자도 하반기로 가면서 점차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 소비자물가는 석유류가격 하락, 농축수산물가격 상승폭 축소 등으로 오름세가 0%대 후반으로 둔화되었다. 근원인플레이션율(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은 1% 수준을, 일반인 기대인플레이션율은 2%대 초중반 수준을 나타내었다. 앞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1월 전망경로를 다소 하회하여 당분간 1%를 밑도는 수준에서 등락하다가 하반기 이후 1%대 중반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근원인플레이션율도 완만하게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 금융시장은 안정된 모습을 보였다. 주가가 미·중 무역분쟁 완화 기대 등으로 상승하였으며, 장기시장금리와 원/달러 환율은 좁은 범위 내에서 등락하였다. 가계대출은 증가세 둔화가 이어졌

며, 주택가격은 소폭 하락하였다.

□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성장세 회복이 이어지고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다. 국내경제가 잠재성장률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성장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당분간 수요 측면에서의 물가상승압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므로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이다. 이 과정에서 완화정도의 추가 조정 여부는 향후 성장과 물가의 흐름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판단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주요국과의 교역여건, 주요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변화, 신흥시장국 금융·경제상황, 가계부채 증가세, 지정학적 리스크 등도 주의깊게 살펴볼 것이다.

#### ◇ 통화정책방향

(2019년 4월 18일, 제7차)

□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 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1.75%)에서 유지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다.

□ 세계경제는 성장세가 완만해지는 움직임을 지속하였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 주요국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 변화 등으로 주요국 국제금리가 상당폭 하락하는 가운데 일부 취약 신흥시장국의 환율이 큰 폭 상승하는 등 변동성이 일시 확대되었다. 앞으로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은 보호무역주의 확산 정도,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브렉시트 관련 불확실성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

□ 국내경제는 소비 증가세가 주춤한 모습을 나타

낸 데다 설비 및 건설투자의 조정과 수출 증가세 둔화가 지속됨에 따라 성장세가 다소 완만해진 것으로 판단된다. 고용 상황은 취업자수 증가규모가 늘어나는 등 부진이 일부 완화되는 움직임을 보였다. 앞으로 건설투자 조정이 지속되겠으나 소비가 증가 흐름을 이어가고 수출과 설비투자도 하반기로 가면서 점차 회복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년 중 GDP성장률은 1월 전망치(2.6%)를 소폭 하회하는 2%대 중반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 소비자물가는 석유류와 농축수산물 가격 하락 등으로 오름세가 0%대 중반으로 낮아졌다. 근원인플레이션율(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은 0%대 후반을, 일반인 기대인플레이션율은 2%대 초중반을 나타내었다. 앞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1월 전망경로를 하회하여 당분간 1%를 밑도는 수준에서 등락하다가 하반기 이후 1%대 초중반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근원인플레이션율도 완만하게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 금융시장에서는 가격변수의 변동성이 다소 확대되었다. 장기시장금리와 주가는 주요국의 성장세 약화 전망, 미·중 무역협상 진전 기대 등에 따른 국제금융시장의 움직임에 영향받으면서 하락 후 상승하였다. 원/달러 환율은 달러화 강세로 상승하였다. 가계대출은 증가세 둔화가 이어졌으며, 주택가격은 하락세를 지속하였다.
-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성장세 회복이 이어지고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다. 국내경제가 잠재성장률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수요 측면

에서의 물가상승압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므로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이다. 이 과정에서 주요국과의 교역여건, 주요국의 경기와 통화정책 변화, 신흥시장국 금융·경제 상황, 가계부채 증가세, 지정학적 리스크 등의 전개상황과 국내 성장 및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주의깊게 살펴볼 것이다.

## ◇ 통화정책방향

(2019년 5월 31일, 제10차)

-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 시기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1.75%)에서 유지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다.
- 세계경제는 성장세가 완만해지는 움직임을 지속하였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미·중 무역분쟁 심화, 주요국 경제지표 부진 등으로 주요국 국제금리와 주가가 하락하고 신흥시장국의 환율이 상승하는 등 변동성이 확대되었다. 앞으로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은 보호무역주의 확산 정도,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지정학적 리스크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
- 국내경제는 설비 및 건설투자의 조정이 지속되고 수출이 부진한 모습을 보였으나 소비가 완만하나 증가세를 이어가면서 1/4분기의 부진에서 다소 회복되는 움직임을 나타내었다. 고용 면에서는 취업자수 증가규모가 줄어들고 실업률이 높아졌다. 앞으로 국내경제의 성장흐름은 건설투자 조정이 지속되겠으나 소비가 증가 흐름을 이어가고 수출과 설비투자도 하반기에는 점차 회복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지난 4월 전망경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미·중 무역분쟁 심화 등으로 전망경로의 불확



실성은 높아진 것으로 판단된다.

□ 소비자물가는 석유류가격 하락폭 축소 등으로 상승률이 0%대 중반에서 소폭 높아졌다. 근원인플레이션율(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은 0%대 후반을, 일반인 기대인플레이션율은 2%대 초반을 나타내었다. 앞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당분간 1%를 밑도는 수준에서 등락하다가 하반기 이후 1%대 초중반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나, 전망경로의 하방위험은 다소 높아진 것으로 판단된다. 근원인플레이션율도 완만하게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 금융시장에서는 국제금융시장의 움직임, 국내외 경기둔화 우려 등의 영향으로 가격변수의 변동성이 확대되었다. 장기시장금리와 주가가 큰 폭 하락하였고 원/달러 환율은 상당폭 상승하였다. 가계대출은 증가세 둔화가 이어졌으며, 주택가격은 하락세를 지속하였다.

□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성장세 회복이 이어지고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다. 국내경제가 잠재성장률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수요 측면에서의 물가상승압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므로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이다. 이 과정에서 미·중 무역분쟁, 주요국의 경기와 통화정책 변화, 신흥시장국 금융·경제상황, 가계부채 증가세, 지정학적 리스크 등의 전개상황과 국내 성장 및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주의깊게 살펴볼 것이다.

## ◇ 통화정책방향

(2019년 7월 18일, 제13차)

□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 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의 1.75%에서 1.50%로 하향 조정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다.

□ 세계경제는 미·중 무역분쟁 등으로 교역이 위축되면서 성장세가 완만해지는 움직임을 지속하였다. 국제금융시장은 주요국 통화정책 완화에 대한 기대 등으로 주요국의 주가가 상승하는 등 대체로 안정된 모습을 나타내었다. 앞으로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은 보호무역주의 확산 정도,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지정학적 리스크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

□ 국내경제는 소비가 완만한 증가세를 이어갔으나 건설투자 조정이 지속되고 수출과 설비투자의 부진이 심화되면서 성장세가 둔화된 것으로 판단된다. 고용 상황은 취업자수 증가폭이 확대되는 등 일부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앞으로 국내경제의 성장흐름은 소비가 증가세를 이어가겠으나 건설투자 조정이 지속되고 수출과 설비투자 회복도 당초 예상보다 지연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년 중 GDP성장률은 지난 4월 전망치(2.5%)를 하회하는 2%대 초반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 소비자물가는 석유류가격의 하락세 지속 등으로 0%대 중후반의 낮은 오름세를 이어갔다. 근원인플레이션율(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은 0%대 중후반을, 일반인 기대인플레이션율은 2%대 초반을 나타내었다. 앞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4월 전망경로를 하회하여 당분간 1%를 밑도는 수준에서 등락하다가 내년 이후

1%대 초중반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근원인플레이션율도 완만하게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 금융시장에서는 가격변수의 변동성이 확대되었다. 장기시장금리가 국내외 경기둔화 우려 등으로 크게 하락하고 주가와 원/달러 환율은 미·중 무역분쟁, 일본의 수출규제 등에 영향받으며 상당폭 등락하였다. 가계대출은 증가세 둔화가 이어졌으며, 주택가격은 하락세를 지속하였다.

□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성장세 회복이 이어지고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다. 국내경제의 성장세가 완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수요측면에서의 물가상승압력이 낮은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되므로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이다. 이 과정에서 미·중 무역분쟁, 일본의 수출규제, 주요국의 경기와 통화정책 변화, 가계부채 증가세, 지정학적 리스크 등의 전개상황과 국내 성장 및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주의깊게 살펴볼 것이다.

#### ◇ 통화정책방향 (2019년 8월 30일, 제16차)

□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 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1.50%)에서 유지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다.

□ 세계경제는 교역이 위축되면서 성장세가 둔화되었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미·중 무역분쟁 및 이에 따른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 등으로 주요국 국채금리와 주가가 큰 폭 하락하는 등 가격변수의 변동성이 확대되었다. 앞으로 세계경제와 국

제금융시장은 보호무역주의 확산 정도,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지정학적 리스크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

□ 국내경제는 건설투자 조정과 수출 및 설비투자 부진이 지속된 가운데 소비 증가세가 약화되면서 성장세 둔화 흐름을 이어간 것으로 판단된다. 고용 상황은 취업자수 증가폭이 확대되는 등 일부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앞으로 국내경제는 미·중 무역분쟁 심화, 지정학적 리스크 증대 등으로 성장 전망경로의 불확실성이 한층 커진 것으로 판단된다.

□ 소비자물가는 석유류와 농축수산물 가격 하락 등으로 오름세가 0%대 중반으로 낮아졌다. 근원인플레이션율(식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은 0%대 후반을, 일반인 기대인플레이션율은 2% 수준을 나타내었다. 앞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7월 전망경로에 비해 하방위험이 높아져 당분간 0%대 초반에서 등락하다가 내년 이후 1%대 초중반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근원인플레이션율도 완만하게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 금융시장에서는 미·중 무역분쟁과 지정학적 리스크 등에 따른 국내외 경기둔화 우려로 가격변수의 높은 변동성이 지속되었다. 장기시장금리와 주가가 크게 하락하고 원/달러 환율도 큰 폭 상승하였다. 가계대출은 증가세 둔화가 다소 주춤한 모습을 보였다. 주택가격은 하락세를 지속하였으나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는 오름세를 나타내었다.

□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성장세 회복이 이어지고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

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다. 국내경제의 성장세가 완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수요 측면에서의 물가상승압력이 낮은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되므로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이다. 이 과정에서 향후 거시경제와 금융안정 상황의 변화를 면밀히 점검하면서 완화 정도의 조정 여부를 판단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미·중 무역분쟁, 주요국의 경기와 통화정책 변화, 가계부채 증가세, 지정학적 리스크 등도 주의깊게 살펴볼 것이다.

◇ **통화정책방향**  
(2019년 10월 16일, 제19차)

-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 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의 1.50%에서 1.25%로 하향 조정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다.
- 세계경제는 교역이 위축되면서 성장세 둔화가 지속되었다. 국제금융시장은 미·중 무역협상 관련 불확실성, 주요국 경제지표 부진 등의 영향으로 높은 변동성을 나타내었다. 앞으로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은 보호무역주의 확산 정도,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지정학적 리스크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
- 국내경제는 건설투자 조정과 수출 및 설비투자 부진이 지속된 가운데 소비 증가세가 약화되면서 성장세 둔화 흐름을 이어간 것으로 판단된다. 고용 상황은 취업자수 증가폭이 확대되는 등 일부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앞으로 국내경제는 미·중 무역분쟁 지속, 지정학적 리스크 증대 등으로 지난 7월의 성장 전망경로를 하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석유류, 농축수산물 및 공공서비스 가격의 하락 등으로 마이너스를 나타내었다. 근원인플레이션율(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은 0%대 중반으로, 일반인 기대인플레이션율은 1%대 후반으로 낮아졌다. 앞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7월 전망경로를 하회하여 당분간 0% 내외에서 등락하다가 내년 이후 1%대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근원인플레이션율도 완만하게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 금융시장에서는 주요 가격변수가 국제금융시장 움직임에 영향받으며 상당폭 등락한 가운데, 장기시장금리와 주가는 상승하였고, 원/달러 환율은 하락하였다. 가계대출은 증가세 둔화 흐름을 이어갔다. 주택가격은 보험세를 보였으나 수도권에서는 오름세를 나타내었다.

□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성장세 회복이 이어지고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다. 국내경제의 성장세가 완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수요 측면에서의 물가상승압력이 낮은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되므로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이다. 이 과정에서 향후 거시경제와 금융안정 상황의 변화, 두 차례 기준금리 인하의 효과를 지켜보면서 완화 정도의 조정 여부를 판단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미·중 무역분쟁, 주요국의 경기와 통화정책 변화, 가계부채 증가세, 지정학적 리스크 등도 주의깊게 살펴볼 것이다.

◇ **통화정책방향**  
(2019년 11월 29일, 제22차)

□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 시까

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1.25%)에서 유지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다.

□ 세계경제는 교역이 위축되면서 성장세 둔화가 지속되었다. 국제금융시장은 미·중 무역협상 진전 등으로 위험회피심리가 완화되면서 대체로 안정된 모습을 나타내었다. 앞으로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은 보호무역주의 확산 정도,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지정학적 리스크 등에 영향 받을 것으로 보인다.

□ 국내경제는 건설투자 조정과 수출 및 설비투자 부진이 지속된 가운데 소비 증가세가 약화되면서 성장세 둔화 흐름을 이어간 것으로 판단된다. 고용 상황은 취업자수 증가폭이 확대되는 등 일부 개선되는 움직임을 지속하였다. 내년 중 국내 경제는 건설투자 조정이 이어지겠지만 수출과 설비투자 부진이 다소 완화되고 소비 증가세는 완만하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GDP성장률은 금년 중 2% 내외, 내년 중 2%대 초반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농축수산물 가격의 하락폭 축소 등으로 0% 수준을 나타내었다. 근원인플레이션율(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은 0%대 중반을, 일반인 기대인플레이션율은 1%대 후반을 유지하였다. 앞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점차 높아져 내년 중에는 1% 내외, 근원인플레이션율은 0%대 후반을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 금융시장에서는 국제금융시장 움직임의 영향 등으로 장기시장금리와 주가가 상승하고 원/달러 환율은 하락하였다. 가계대출은 증가세 둔화 흐름을 이어갔다. 주택가격은 수도권 지역의 오름세가 확대되면서 상승하였다.

□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성장세 회복이 이어지고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다. 국내경제의 성장세가 완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수요측면에서의 물가상승압력이 낮은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되므로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이다. 이 과정에서 미·중 무역협상, 주요국의 경기와 통화정책, 가계부채 증가세, 지정학적 리스크 등의 전개와 국내 거시경제 및 금융안정 상황에 미치는 영향을 주의깊게 살펴보면서 완화정도의 조정 여부를 판단해 나갈 것이다.

## ◇ 2020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 (2019년 12월 26일, 제24차)

### I. 2020년 통화신용정책 운영여건

#### 1. 경제성장

◆ 국내경제는 전년보다 소폭 높은 2%대 초반의 성장세를 나타낼 전망

□ 세계경제는 성장세가 완만하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나 보호무역주의 지속, 지정학적 리스크 등의 불확실성이 상존

○ 선진국은 국가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대체로 전년 수준의 성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

■ 미국이 소비를 중심으로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세를 나타내고 유로지역도 제조업 부진 완화 등으로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가겠지만, 일본은 소비세율 인상 영향 등으로 성장세가 둔화될 전망

○ 신흥국은 세계교역 위축 완화, 확장적 거시경제정책 등으로 성장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

■ 다만 중국은 미·중 무역분쟁 관련 불확실성, 정부의 성장구조 전환기조 유지 등으로 완만한 성장세 둔화 흐름이 이어질 전망

○ 향후 세계경제 성장경로에는 보호무역주의 지속, 지정학적 리스크 등의 불확실성 요인이 잠재

○ 한편 글로벌 인플레이션은 성장세가 개선되면서 전년보다 높아지겠지만, 국제유가 약세 등으로 상승폭은 제한적일 전망

□ 국내경제는 전년보다 소폭 높은 2%대 초반의 성장세를 나타낼 전망

○ 세계교역 부진 완화, 반도체경기 회복, 정부의 확장적 재정운용 등으로 설비투자과 수출이 개선되고 민간소비도 하반기 이후 완만하게 회복될 것으로 예상

○ 다만 성장세가 잠재성장률 수준을 밑돌면서 GDP갭률의 마이너스폭은 소폭 확대될 전망

○ 향후 성장 전망경로의 불확실성은 높은 상황

— 글로벌 무역분쟁 지속, 지정학적 리스크 증대, 반도체경기 회복 지연 등은 하방요인으로, 미·중 무역협상 타결, 정부의 적극적 경기대응정책에 따른 내수여건 개선 등은 상방요인으로 잠재

#### 2. 물가

◆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보다 높아지겠으나 목표수준\*을 하회할 전망

\*「2019년 이후 물가안정목표」 설정(2018.12월) 시 목표수준을 2.0%로 설정하고 물가안정목표제의 안정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해 적용기간을 특정하지 않기로 한 바 있음

□ 소비자물가는 1% 내외의 오름세를 나타낼 전망

- 공급측 하방압력이 완화되면서 상승률이 전년보다 높아지겠지만 미약한 수요측 물가압력과 정부의 교육·의료 지원 확대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

- 근원인플레이션율(식료품·에너지 제외)은 전년과 비슷한 0%대 후반의 오름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

□ 향후 물가 전망경로에는 국내외 경기 개선세 확대, 일부 공공요금 인상 가능성 등이 상방요인으로, 정부의 복지정책 강화, 내수회복 지연에 따른 수요측 압력 약화 등이 하방요인으로 잠재

### 3. 금융·외환시장

◆ 금융·외환시장은 변동성이 수시로 확대될 가능성

□ 대외 리스크 요인들의 전개양상에 따라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수시로 확대될 가능성

- 국내외 경제의 성장세 개선 기대 및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 등이 투자심리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겠으나, 미·중 간 후속 무역협상 및 글로벌 경기 관련 불확실성, 지정학적 리스크 등이 시장 불안요인으로 잠재

- 대외 리스크 요인들이 현재화될 경우 위험회피심리가 증대되면서 주요 가격변수와 외국인 증권투자자금 유출입의 변동성이 커질 우려

□ 국내 은행의 외화유동성 사정은 경상수지 흑자 기조 등으로 대체로 양호한 수준을 지속할 전망

- 다만 글로벌 금융시장 상황 변화 등에 따라서는 대외 차입여건도 부정적 영향을 받을 가능성

### 4. 금융안정

◆ 금융기관의 신용공급이 원활하고 건전성도 대체로 안정된 모습을 이어가겠지만, 부동산·고위험자산으로의 자금 유입 확대 및 취약차주의 채무상환능력 저하 가능성 등이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소지

□ 금융기관의 신용공급은 기업대출을 중심으로 대체로 원활할 전망

- 가계대출은 정부의 거시건전성정책 강화 기조 등의 영향으로 완만한 증가세 둔화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

- 기업대출은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비교적 높은 증가세를 지속할 전망

□ 금융기관 건전성은 양호한 자산건전성 및 복원력 등을 바탕으로 대체로 안정된 모습을 이어갈 전망

- 다만 저금리 장기화에 따른 부동산 및 고위험자산으로의 자금유입 확대, 저성장 기조 지속에 따른 취약가계 및 한계기업의 채무상환능력 저하 가능성 등이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소지

- ◆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하되, 완화정도의 조정 여부는 거시경제 및 금융안정 상황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 ◆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제고하고 정책수단의 효율적 운영방안을 마련
- ◆ 금융·외환시장에 대한 모니터링과 금융시스템 안정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불안 발생 시 적극 대응

1. 기준금리 운용

□ (통화정책의 완화기조 유지) 기준금리는 성장세 회복을 지원하고 중기적 시계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물가안정목표(2.0%) 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완화적으로 운용

- 국내경제 성장세가 잠재성장률 수준을 하회하고 수요 측면에서의 물가 상승압력이 약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고려
- 완화정도의 조정 여부는 미·중 무역분쟁, 글로벌 경기 등 주요 리스크 요인의 전개와 국내 거시경제 흐름 및 금융안정 상황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판단
- 이 과정에서 다양한 지표\*를 활용하여 기조적 물가 흐름을 면밀히 점검

\* 근원물가 및 보조 물가지표(관리물가제외 근원물가

□ (금융안정 유의) 금융완화기조 지속에 따른 금융 불균형 누적 위험과 대외 리스크 요인 변화에 따른 자본유출입 및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유의

- 가계 및 기업 대출 등 민간신용의 증가세, 특정 자산시장으로의 자금쏠림 등을 면밀히 점검
- 대외 불확실성 요인의 전개가 위험선호성향, 글로벌 유동성 흐름 등에 미치는 영향을 주의 깊게 점검

□ (「통화신용정책 운영의 일반원칙」 유지) 「통화신용정책 운영의 일반원칙」(2016년 공표)의 수정·보완 여부\* 점검 결과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

\* 정책목적과 정책운용 시 다양한 고려요인과의 관계, 목적달성을 위한 기본지침의 변경 필요성 등(<참고> 「통화신용정책 운영의 일반원칙」 참조)

2. 통화정책의 유효성 제고

□ (정책 커뮤니케이션 강화) 통화정책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여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제고

-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의 지속적인 개선,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 자료의 공개 확대 등을 통해 정책결정 배경에 대한 설명을 강화
-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연 2회) 등을 통해 물가 상황 및 전망, 리스크 요인, 통화정책방향 등을 충실히 설명

□ **(경제여건 변화에 대응한 연구·분석 강화)** 대내외 경제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물가안정목표제 운영, 통화정책 파급효과, 금리 이외 통화정책 수단 등에 대한 연구·분석을 강화하고 대응방안을 모색

○ 물가안정목표제 운영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점검\*

\*「2019년 이후 물가안정목표」 설정(2018.12.26일)에 따라 당행은 2년 주기로 개선사항 등을 점검하고 정부와 협의하여 그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설명

— 인플레이션 동학 변화 등 중장기 물가변동 요인에 대한 분석을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물가안정목표제의 효율적 운용 방안을 모색

○ 대내외 구조적 변화 등을 고려하여 통화정책 파급경로 및 효과를 점검·분석

○ 금리정책 여력 축소 등에 대비하여 중장기적 시계에서 국내 금융·경제 여건에 적합한 금리 이외 통화정책 수단의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를 강화

### 3. 대출제도의 효율적 운용

□ **(금융중개지원대출의 성장 지원 강화)** 금융중개지원대출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세 회복을 지원

○ 금융중개지원대출 운용성과 분석을 통해 제도 개편(2019.10월)의 효과를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

○ 중소기업 신용여건 및 자금사정의 변화 등을 반영하여 프로그램별 한도 및 운용방식을 탄력적으로 조정

○ 금융중개지원대출 지원이 중소기업 대출금리 경감으로 이어지도록 유도하는 노력을 강화

□ **(대출담보제도 개편)** 금융기관의 가용담보, 금융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한국은행 대출 적격담보증권 인정대상 확대를 검토

○ 적격담보증권 인정대상 확대 시 담보가치인 정비율(haircut) 등 담보위험 관리체계를 점검·강화

### 4. 금융·외환시장 안정 도모

□ **(금융·외환시장 안정 노력 지속)** 금융·외환시장의 불안 발생 가능성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 시 시장안정화 조치를 적기 시행

○ 비상대응계획을 상시 점검·보완하고 시장 불안 요인 발생 시 「통화금융대책반」 등 비상대응체제를 즉각 가동

○ 금리·환율 등은 기본적으로 시장수급에 의해 결정되도록 하되, 시장의 쓸림이 과도해지는 등 불안 심화 시에는 단계별 시장안정화 조치를 적기에 시행하여 안정을 도모

□ **(유동성 조절 기반 확충)** 시장 상황 변화에 신속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유동성 공급 채널을 점검하고 국고채 보유 규모를 확대

○ RP매각용 국고채 확충 등을 위해 국고채 단순



## 매입 실시

- 단기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대비하여 비은행 대상 RP매입 테스트\*를 실시

\* 현재 RP매매 대상기관으로 선정되어 있으나 장기간 실제 RP매입 실적이 없는 비은행금융기관을 대상으로 비상 시 대응능력 제고 차원에서 실제 RP매입을 실시

- 시장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공개시장운영 대상기관 선정기준, 입찰제도 등을 개선

□ **(지표금리 확충 노력 강화)** 기존 지표금리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새로운 무위험지표금리 개발을 위한 노력을 강화

- 주요국 사례, 국제적 정합성 등을 고려하여 관계국과 함께 새로운 무위험지표금리를 선정하고 공시 관련 준비작업을 추진

□ **(글로벌 정책·금융 협력 강화)** 국제기구·협약체에서의 역할 확대, 국제 금융안전망 강화 등을 통해 외부충격에 대한 대응능력을 제고

- 글로벌 주요 이슈 등에 대한 국제기구·협약체의 논의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주요국 중앙은행과의 금융협력 관계 강화 노력을 지속

## 5. 금융시스템 안정 유지

□ **(조기경보 활동 강화)**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임으로 예상치 못한 충격이 금융시스템 리스크로 확산되지 않도록 조기경보 활동을 강화

- 저금리 기조하에서 금융불균형 누증 위험, 가계·기업의 신용위험 증대 가능성 및 금융기관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금융안정보고서」 등을 통해 다각적으로 분석·점검

- 금융안정 상황 분석의 정도를 제고\*하고 개별 금융기관에 대한 모니터링 및 부문검사를 강화하여 시스템리스크 요인을 조기에 파악

\* 금융안정지수(FSI) 개편을 통해 위기에 대한 조기경보 기능을 강화하고, 기존의 리스크 평가 모형을 지속적으로 보완

□ **(지급결제인프라 확충·개선)** 차세대 한은금융망 구축 사업 추진(2020년 하반기 완료 예정) 등 지급결제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개선

- 은행권 공동으로 추진중인 「모바일 직불서비스\*」의 활성화를 지원

\* 간편결제, ATM 이용, 거스름돈 계좌입금, 가맹점 출금 등이 가능

- 핀테크 혁신에 부응하여 지급결제시스템의 개방성을 확대하되 안전성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급결제제도 참가기준을 마련

□ **(지급결제 혁신 촉진 및 감시체계 강화)** 분산원장기술, 암호자산 및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에 대한 연구를 보다 강화하고 결제시스템의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감시자 역할을 적극 수행

- CBDC 연구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전문인력을 보강하는 한편 주요국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 발행 추진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BIS 등 국제기구의 관련 논의에도 적극 참여

- 지급결제시스템 감시업무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국제기준인 「금융시장인프라에 관한 원  
칙(PFMI)」을 기반으로 국내상황을 반영한 평  
가지침을 제정

<참고>

### 통화신용정책 운영의 일반원칙

한국은행법은 통화신용정책의 목적으로 '물가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며, '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금융안정에 유의'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이러한 목적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목표와 기본방향 하에서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함으로써, 정책 투명성과 예측가능성 및 유효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 **(물가안정목표제)**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의 핵심 목적인 물가안정의 효율적 달성을 위해 신축적 물가안정목표제를 운영하며, 현재 물가안정목표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동기대비) 기준 2.0%이다.

○ **(중기적 운영 시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통화신용정책 외에도 다양한 대내외 경제·금융 요인의 영향을 받으므로, 물가안정목표는 일시적·불규칙적 요인에 따른 물가변동과 통화신용정책의 파급시차를 고려하여 중기적 시계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이다.

○ **(미래지향적 운영)** 물가상승률이 중기적 시계에서 목표수준에 안정적으로 수렴하도록 통화신용정책을 미래지향적으로 운영하되,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을 지속적으로 상회하거나 하회할 위험을 균형 있게 고려한다.

- 물가안정목표 수준으로의 수렴 가능성은 물가 및 성장 전망과 더불어 전망경로 상의 불확실성과 위험요인 및 금융안정 상황 등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에 기초하여 판단한다.

○ **(신축적 운영)** 중기적 시계에서의 물가안정목표 달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물경제의 성장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통화신용정책을 운영한다.

□ **(금융안정에 대한 고려)** 한편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안정목표를 달성함에 있어 통화신용정책 운영이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신중히 고려한다.

○ **(물가안정목표제와의 관계)** 지속적인 금융불균형은 궁극적으로 거시경제의 안정을 저해하는 위험요인이라는 점에서 통화신용정책을 운영함에 있어 금융안정에 유의하는 것은 신축적 물가안정목표제의 취지에 부합한다.

○ **(금융안정 점검)** 한국은행은 금융안정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평가·공표하여 통화신용정책 운영이 금융불균형의 과도한 누적을 초래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 **(거시건전성 정책과의 조화)** 경제 전반에 무차별적인 영향을 미치는 통화신용정책만으로 금융안정을 추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금융불균형 누적 억제를 위해서는 통화신용정책과 거시건전성 정책이 조화롭게 운영되는 것이 필요하다.

## (2) 통화신용정책업무 주요 내용

### ◇ 2019년도 한국은행의 대정부 일시대출금 한도 및 대출조건 결정 (2019년 1월 17일, 제1차)

#### 1. 대출금 한도, 상환기한 및 이율 등은 다음과 같다.

##### 가. 대출금 한도 및 상환기한

대출구분	회계별	대출금한도 (억 원)	상환기한	기타
일시대출금	통합계정	300,000	2020.1.20일	대출취급기한 : 2019.12.31일 (단, 양곡관리특별회계의 경우 2018년 대출금 중 미상환액을 한도에 포함하여 관리)
	양곡관리특별회계	20,000	대출일로부터 1년 이내 (단, 2020.9.30일을 초과할 수 없음)	
	공공자금관리기금	80,000	2019.12.31일	
합계		400,000		

나. 이율은 분기별로 “직전분기 말월 중 91일물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의 일평균유통수익률\*”에 0.10%포인트를 더한 율로 한다.

\* ‘한국금융투자협회’ 고시 통화안정증권(91일물) 수익률의 단순평균으로 계산하되, 소수점 이하 넷째자리에서 반올림

다. 대출형식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한 대출금 한도와 대출취급기한 내에서 정부의 일시차입 요청이 있는 경우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한 한도 및 조건 등을 확인한 후 신용대출로 취급하는 방식으로 한다.

#### 2. 부대조건

가. 정부는 일시적인 부족자금을 「국고금 관리법」에 따라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차입에 앞서 재정증권의 발행을 통해 조달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나. 정부는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일시차입이 구조적인 부족자금 조달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 양곡관리특별회계의 기존 차입금이 상환계획에 따라 상환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다. 정부는 차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차입시기, 규모, 기간 등에 관해 사전에 한국은행과 충분히 협의하여야 한다.

3. 위임사항 : 건별 대출의 실행은 한국은행 총재에게 위임한다.

4. 시행일자 : 2019년 1월 17일(목)

### ◇ 「한국은행의 금융기관대출규정」 개정 (2019년 8월 30일, 제16차)

□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배정 대상 대출실적 중 ‘창업기업·일자리창출기업대출’을 ‘창업기업·소재부품장비기업·일자리창출기업대출’로 변경(제11조제1항)

□ 「영세자영업자지원 프로그램」의 지원대상인 전환대출의 신규공급이 중단됨에 따라 동 프로그램의 신규지원을 종료하고 관련 경과조치를 마

련(제9조제2항, 제11조제1항, 부칙)

□ 시행일자 : 2019년 10월 1일(목)

◇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 결정**  
(2019년 8월 30일, 제16차)

□ 2019년 10월 1일부터 적용할 한국은행의 금융 기관에 대한 금융중개지원대출의 총 한도는 25조 원으로 하고 프로그램별 한도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 무역금융지원 프로그램 한도는 현재의 1.5조 원에서 1조 원 증액한 2.5조 원으로 한다.
- 신성장·일자리지원 프로그램 한도는 현재의 6조 원에서 4조 원 증액한 10조 원으로 한다.
- 중소기업대출안정화 프로그램 한도는 현재의 11조 원에서 5조 원 감액한 6조 원으로 한다.
- 영세자영업자지원 프로그램 한도는 현재의 0.5조 원을 유지하되 2019년 11월 13일부터는 0.5조 원을 전액 감액하고, 동 금액만큼 중소기업대출안정화 프로그램 한도를 6조 원에서 6.5조 원으로 증액한다.
-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한도 및 한도 유보분은 현재의 규모를 유지한다.

### (3) 금융안정회의 주요 내용

#### ◇ 「금융안정 상황점검」 주요 논의 내용

(2019년 3월 28일, 제6차)

(1) 금융안정국장이 「금융안정 상황점검」에 대하여 보고하였음.

(2) 위원 토의내용

관련부서에서는 위원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음.

먼저 일부 위원은 부문별 금융안정 상황 및 금융시스템 복원력에 대한 본문의 분석내용에 보다 부합하도록 개황 부분의 일부 표현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다른 일부 위원은 주요 참고자료를 작성한 배경을 명시함으로써 보고서 작성방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음.

다음으로 일부 위원은 향후 가계부채 및 주택시장의 방향성을 예단하기 어려우므로 관련 리스크를 모두 염두에 둘 필요가 있으며, 가계부채 상황, 임대가구의 재무건전성 등 개별 이슈에 대한 분석에 더해 각 이슈 간 연관성도 감안하여 보고서 체계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나타내었음.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가계부채 및 주택시장 상황은 거시경제 여건 등에 따라 그 방향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여러 리스크 요인을 염두에 두고 분석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답변하였음. 또한 자료의 한계 등 어려움이 있지만 앞으로 개별 이슈 간 연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보고서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첨언하였음.

일부 위원은 분석시계가 짧은 경우 과거 위기 시와의 비교가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보다 긴 시계에서 분석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음.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집계 기간이 짧은 일부 통계를 제외하고 여타 통계에 대해서는 시계를 확장함으로써 보다 장기적인 흐름을 파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하였음.

또한 일부 위원은 자산시장 등 큰 변화가 없는 부문은 개황에서 간략히 설명하고 주요 이슈를 중심으로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 메시지 전달에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아울러 일부 위원은 향후 DSR 추이 전망에 대해 질의함과 더불어 아파트 분양물량 전망치의 경우 변경이 잦고 실제치와 차이가 있는 만큼 지표 해석 시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나타내었음.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기본적으로 DSR 규제는 DSR을 낮추거나 상승폭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나, 가계소득 변화에 따라 향후 DSR 추이의 방향성이 달라질 수 있다고 답변하였음. 또한 아파트 분양물량의 전망치와 실제치 간 차이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며 관련 수치의 해석 및 활용에 유의하겠다고 첨언하였음.

한편, 일부 위원은 최근 가계부채 상황 및 취약차주 부채 규모에 대한 분석과 관련하여, 신용도가 낮은 취약차주가 비취약차주에 비해 신용대출 비중이 높다는 점은 중장기적으로 가계부채 부실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다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음.

이와 관련하여 다른 위원은 가계부채 취약차주와

고위험가구를 연계하여 분석할 경우 가계부채 부실 위험을 보다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취약차주의 신용대출이 전체 가계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으나, 차주의 신용도가 낮고 고금리 대출상품을 주로 이용하는 점을 감안하여 관련 리스크를 계속 점검하겠다고 답변하였음. 또한 가계부채 취약차주와 고위험가구의 연계분석 방법을 모색해 보겠다고 첨언하였음.

일부 위원은 보증부 가계대출의 급격한 확대는 그 자체로 리스크에 대한 가격책정 및 신용공급을 왜곡시킬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으며, 위기 상황을 상정하여 보증부 가계대출 차주의 건전성 및 보증기관의 위기대응 여력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다른 위원은 보증부 가계대출이 빠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보증기관의 운용배수도 크게 높아져 향후 위기발생 시 대위변제 규모 확대, 기존 보증부 대출 회수 등의 상황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리스크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나타내었음.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앞으로 보증부 가계대출에 대한 미시자료 등을 확보하여 위기상황 시 보증기관의 대응여력 등을 점검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겠다고 답변하였음.

또한 일부 위원은 최근 카드사의 경영환경 악화는 핀테크 확산에 따른 경쟁심화, 정책 및 규제리스크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언급하면서, 이러한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동 리스크가 카드

사의 경영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나타내었음.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최근의 경영환경 변화가 카드사의 수익성 등 경영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답변하였음.

아울러 일부 위원은 부동산 임대가구의 재무건전성에 대한 분석과 관련하여, 부동산시장 조정 시 과다 차입을 통해 부동산을 구입한 후 임대 중인 가구를 중심으로 채무상환능력과 재무건전성이 악화될 가능성에 대한 분석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음.

마지막으로 일부 위원은 금융위기 이후 기업의 부채구조 및 채무상환능력 변화에 대한 분석과 관련하여, 금융위기 이후 기업의 경영건전성이 대체로 개선되었다고 판단되지만, 최근 들어 경영여건 악화 등으로 실적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나타내었음.

관련부서에서는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관련 내용을 수정·보완한 후 그 결과를 위원들에게 설명하였음.

이와 같은 관련부서의 보고 후 본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다음과 같음.

일부 위원은 앞으로 금융안정 상황 분석 시 유의해야 할 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음.

우선 전 세계적으로 저성장·저금리 기조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투자자들의 수익 추구 성향(search for yield)이 강해지고 기업의 자금 조달 행태가 달라지는 등 금융시장의 환경 변화가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음.

또한 국내 금융시장의 발전이나 글로벌 금융시장과의 통합 정도 등을 감안할 때, 금융안정 상황을 분석함에 있어 대외지급능력이나 자본유출입 규모 등을 위주로 하는 방어적(defensive) 관점을 넘어 글로벌 금융시장과의 연계성 속에서 투자자금 흐름이 국내 금융기관이나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 등을 보다 심층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음.

다른 일부 위원은 당행의 금융안정 책무는 금융안정과 관련된 잠재리스크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이에 조기 대응함으로써 그렇지 않았을 경우 더 큰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 즉 금융불안정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이러한 측면에서 금번 보고서는 금융안정 상황 및 잠재리스크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잘 분석했다고 평가하였음.

또한 동 위원은 최근 빅테크(Big Tech) 기업 등 많은 기업들이 핀테크(Fintech)를 활용하여 지급결제 분야의 혁신을 추구해 나가고 있고, 정부는 관련 법제정 등을 통해 지급결제 분야의 혁신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행법」 제81조에 따라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도모할 책무가 있는 당행도 지급결제의 효율성 증진에 따른 금융소비자 편의 제고와 이를 통한 신산업 성장가능성 등을 지원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피력하였음. 다만, 빅테크 기업의 발전 과정에서 여러 가지 리스크 요인들이 수반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금융안정 책무를 담당하고 있는 당행이 초기 단계부터 잠재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향후 관계 당사자들과의 협의 과정에서 혁신 지원과 리스크 관리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일부 위원은 빅테크 기업과 관련된 여러 잠재리스크들이 엄연히 존재하지만 당장 현실화될 가능성은 제한적으로 보인다고 언급하면서, 이러한 관점에서 빅테크 기업의 발전에 대해 규제 완화와 리스크 관리라는 측면에서 균형있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개진하였음.

일부 위원은 금융시스템의 전반적인 안정 상황을 나타내는 금융안정지수가 최근 수년간 주의단계를 밀도는 등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가계부채와 관련된 금융불균형 이슈 등을 감안할 때 실제 체감하는 상황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이러한 현상의 원인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음.

또한 일부 위원은 당행이 금융안정 책무를 수행함에 있어 잠재리스크를 식별하고 그 영향을 분석하는 것과 함께 정책적 대응방안에 대한 연구도 중요하다고 언급하면서, 유관기관과의 커뮤니케이션 시 대응방안에 대해서도 활발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하였음.

#### ◇ 「금융안정보고서(2019년 6월)」 주요 논의 내용(2019년 6월 20일, 제12차)

(1) 담당 부총재보가 「한국은행법」 제96조에 의거 금융안정보고서(2019년 6월)(안)을 의결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제안설명을 하였음.

(2) 위원 토의내용

제안설명에 이어 관련부서는 금번 보고서 작성의 기본방향과 위원협의회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음.



먼저 보고서 작성의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음.

보고서 체계는 지난해 하반기와 마찬가지로 부문별 금융안정 상황을 살펴보고 금융시스템 복원력을 점검하는 방식을 유지하였음. 또한 미·중 무역분쟁의 심화, 세계경제 및 국내경제의 성장세 둔화 등 최근 여건변화를 감안하여 가계 및 기업의 신용위험을 중점 점검하고, 지난해 개발한 통합 스트레스 테스트(stress test) 모형 등을 통해 금융기관이 대내외 충격을 감내할 수 있는지 평가하였음.

이어서 위원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은 다음과 같음.

우선 다수 위원들은 금번 보고서가 시의성 있는 주제들을 전반적으로 잘 분석하였으며, Growth-at-Risk를 통해 금융취약성을 평가한 것도 적절하였다고 언급하였음.

일부 위원은 보고서 개항에 담긴 금융안정 상황 전반에 대한 평가가 다소 낙관적으로 비취질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최근 대내외 여건 변화에 따른 리스크 요인을 보다 강조하여 기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다른 일부 위원은 5월 중 외국인 주식투자자금의 큰 폭 유출 등 최근의 시장 상황 변화를 추가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음.

또한 일부 위원은 회사채 신용스프레드 축소 등 일부 지표의 움직임이 최근 거시경제 상황과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으므로 향후 관련 지표들의 추이를 면밀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당부하였음.

한편, 일부 위원은 기업신용과 관련하여, 향후 기업의 경영상황에는 미·중 무역분쟁 심화 등 대외여건 뿐만 아니라 설비투자 조정 등 국내 요인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나타내었음.

아울러 일부 위원은 실물경제 및 금융시장 상황이 매우 유동적이므로, 최근 1~2년 동안 금융안정보고서에서 다룬 주요 이슈들에 대해서도 계속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당부하였음.

일부 위원은 금융안정 상황 및 복원력과 관련하여, 민간신용/명목GDP 갭 지표가 우리나라의 금융안정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동 지표의 유용성에 대해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나타내었음.

다른 일부 위원은 금년 1/4분기 중 비은행금융기관의 가계대출이 매우 낮은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고 은행의 경우에도 보증부 대출을 제외할 경우 가계대출 증가율이 낮은 수준인 점 등을 감안하여 금융안정 측면에서 가계부채 리스크에 대해 재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피력하였음.

또한 일부 위원은 최근의 국내 경기 및 자영업 업황 등을 감안할 때 자영업자 대출의 증가세를 일률적으로 억제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에 대해 신중히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아울러 일부 위원은 지난해 기업의 재무건전성이 양호한 것처럼 보이지만 전기전자 업종을 제외할 경우 그렇지 않으며, 특히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이자보상 비율이 1미만인 기업의 비중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내었음.

한편, 일부 위원은 신용스프레드 축소에 따라 회사채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이 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이에 따라 기업의 자금조달 비용 절감 및 부채의

만기구조 개선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으나 향후 금융시장 상황에 따라 자금조달 리스크가 오히려 커질 수 있는 점도 균형 있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음.

일부 위원은 부동산시장의 가격뿐만 아니라 물량 지표도 중요한 정보를 갖고 있으므로 주택가격 변동과 함께 미입주·미분양 물량 등에 대해서도 보다 관심을 기울이는 한편 부동산금융 익스포저(exposure)의 변화도 꾸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하였음.

다른 일부 위원은 국내 기관투자자의 해외 CLO(Collateralized Loan Obligations) 투자와 관련하여, 국내기관이 보유한 CLO의 대부분이 선순위 또는 A등급 메자닌(mezzanine) 채권이라고 하더라도 동 채권의 수익률이 국채 수익률에 비해 높은 것은 손실 위험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므로, 해당 투자의 안정성에 대해 유의할 부분이 없지 않다는 견해를 피력하였음.

다음으로 금융안정 현안 분석 중 대내외 충격에 대한 금융기관의 복원력 점검과 관련하여, 일부 위원은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금융기관의 복원력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모형이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점에 기인한 것일 수도 있으므로 테스트 결과를 해석할 때 이러한 한계에 대해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다른 일부 위원은 주택가격 하락 충격을 설정할 때 사용한 HaR(House prices-at-Risk) 추정 시 민간 신용/명목GDP 비율 갭 대신 가계신용/명목GDP 비율 갭을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음.

또한 일부 위원은 최근 경영상황 변화에 따른 기업

의 채무상환능력 점검과 관련하여, 수출·내수 기업 간 차이 및 업종별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시사점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아울러 일부 위원들은 보증부 가계대출시장의 현황 및 잠재리스크와 관련하여, 공적기관에 의한 보증 확대는 특정부문에 대한 대출을 과도하게 확대시킴으로써 자원배분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경제 전체적인 관점에서 공적 보증 확대에 대한 비용·편익 분석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한편, 일부 위원들은 보증기관의 건전성 위주의 분석에서 더 나아가 거시적 측면에서 보증부 가계대출의 리스크에 초점을 맞춘 분석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관련부서에서는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관련 내용을 수정·보완한 후 그 결과를 위원들에게 설명하였음.

#### ◇ 「금융안정 상황점검」 주요 논의 내용 (2019년 9월 26일, 제18차)

(1) 금융안정국장이 「금융안정 상황점검」에 대하여 보고하였음.

(2) 위원 토의내용

관련부서에서는 위원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음.

먼저 일부 위원은 개황 부분에서 현재의 금융안정 상황, 주요 리스크 요인, 금융시스템 복원력 정도 등

이 종합적으로 잘 정리되었다는 의견을 나타내었음. 다음으로 일부 위원은 분석시계가 짧은 경우 현 상황에 대해 정확하게 평가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특히 시계열 내 국면 전환(regime change) 발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보다 긴 시계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음.

일부 위원은 가계부채 비율, 이자보상배율 등 변수들의 비율로 정의되는 지표들의 경우 그 변동원인을 해석할 때 분자뿐만 아니라 분모의 움직임도 균형있게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예를 들어 최근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는 민간신용/GDP 비율의 경우 민간신용이 꾸준히 늘어난 점 외에 분모인 GDP의 성장세가 둔화된 점도 동 비율의 움직임에 상당부분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였음.

또한 일부 위원은 금년 중 신규주택 입주물량 및 분양물량이 예년에 비해 여전히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언급하면서, 분양물량의 경우 시장 상황에 따라 당초 계획과 실적 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첨언하였음.

한편, 일부 위원은 지난해부터 가계대출 연체율이 상승 전환한 것은 보고서에 적시된 대로 지방 차주의 연체율이 높아진 점과 함께 가계대출 증가율이 크게 높았던 2015~16년 중 취급된 대출의 연체율 움직임과도 무관치 않을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앞으로도 이들 차주의 연체 동향 등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당부하였음.

일부 위원은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 예외적인 수준으로 악화될 경우를 상정하고 금융시스템의 감내 능력을 계속 점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하면서, 이러한 스트레스 테스트의 시나

리오를 설정할 때 단순히 외환위기 또는 금융위기 당시의 상황을 벤치마크(benchmark)하기보다는 그간의 경제구조 변화, 실물·금융부문의 글로벌 통합 정도, 금융업권 간 상호 연계성 및 파급경로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또한 위기상황에서는 금융기관의 외화유동성 사정이 크게 악화될 수 있으므로 스트레스 테스트 시 이에 대한 세심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당부하였음.

한편, 일부 위원은 「지방 가계부채 상황 및 건전성 점검」과 관련하여, 부동산 관련 정책이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부동산경기가 부진한 지방의 가계부채 문제를 집중분석한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하였음.

일부 위원은 「최근 한계기업 현황」 분석과 관련하여, 글로벌 교역여건 악화, 국내경기 둔화 등으로 기업실적이 악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앞으로도 기업의 신용위험 증가 가능성에 계속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음.

다음으로 일부 위원은 「파생결합증권(ELS·DLS) 발행 동향」과 관련하여, 최근 금리 하락에도 불구하고 ELS의 약정 수익률이 비교적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배경에 대해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또한 일부 위원은 「국내 외은지점의 자금 조달 및 운용 특징」과 관련하여 외은지점들이 본점 소재지 별로 상이한 영업형태를 보이는 배경, 그리고 중국계 외은지점들이 역외계정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운용하는 행태에 대해 관심을 두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나타내었음.

관련부서에서는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일부 지표의 시계열을 연장하는 등 보고서의 내용을 수정·보완하였다고 설명하였음.

이와 같은 관련부서의 보고 후 본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다음과 같음.

일부 위원은 당행 금융안정보고서에 대해 국내외적으로 관심이 무척 많다고 언급하면서, 이번에도 주요 이슈를 적절히 발굴하여 잘 분석하였다고 평가하였음.

이어서 동 위원은 금융안정 상황을 평가하기 위해 스트레스 테스트를 진행할 때 금융기관의 안정성이나 자본적정성을 주로 분석하는 데서 더 나아가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점검하는 데도 더욱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일반적으로 스트레스 테스트 시 해외 및 우리나라의 실물경제 충격을 중심으로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있는데, 향후 글로벌 금융충격이 우리 금융시장을 통해 금융기관의 재무상황에 1차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이러한 채널을 감안하는 것도 중요해 보인다고 덧붙였음. 아울러 외환부문의 안정성을 평가할 때 금융기관의 대차대조표, 즉 스톡(stock) 변수에 대한 분석과 더불어 외화유동성 등 플로우(flow) 변수를 보다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금융기관의 대차대조표 충격과 우리나라의 대외지급능력을 서로 연계하여 살펴볼 필요도 있어 보인다는 의견을 나타내었음.

다른 일부 위원은 금번 보고서의 분석 내용을 통해 볼 때, 국내의 경기부진이 지방 가계부채의 건전성 저하, 수익성 악화에 따른 한계기업 증가 등 금융안정 상황에 일부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조짐이 나타나는 것으로 이해된다는 견해를 밝혔음.

한편, 일부 위원은 금번 보고서에서 다룬 지방 가계부채 및 금융기관의 건전성, 한계기업의 동향 등에 대해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갖고 점검해줄 것을 당부하였음.

아울러 일부 위원은 그동안 금융불균형 문제가 계속 거론되는 가운데서도 금융안정지수나 대출 연체율 등 금융기관 건전성 지표는 안정화 추세를 이어왔다고 언급하면서, 이러한 건전성 호조의 이면에 어떤 과정이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건전성 지표에 대한 미시적 분석을 계속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나타내었음.

#### ◇ 「금융안정보고서(2019년 12월)」 주요 논의 내용(2019년 12월 26일, 제24차)

(1) 담당 부총재보가 「한국은행법」 제96조에 의거 금융안정보고서(2019년 12월)(안)을 의결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제안설명을 하였음.

#### (2) 위원 토의내용

제안설명에 이어 관련부서에서는 금번 보고서 작성의 기본방향과 위원협의회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음.

먼저 보고서 작성의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음.

금번 보고서에서는 미·중 무역분쟁의 심화, 세계경제 및 국내경제의 성장세 둔화,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 확대 등의 여건하에서 가계, 기업, 그리고 금융기관의 주요 리스크 요인 등을 점검하고, 경기둔화 및 금융시장 불안이 동시에 나타나는 실물·금융의 복합충격 상황을 가정하여 금융시스템의 복원력을 평가하였음.

이어서 위원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은 다음과 같음.

먼저 다수 위원들은 금번 보고서가 현 시점에서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주요 현안들에 대해 균형있게 분석하였다고 평가하였음.

일부 위원은 주요 현안들 간의 연계성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계속 신경 써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다른 일부 위원은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데에도 계속 노력해야 할 것이라는 견해를 제시하였음.

일부 위원은 금융안정 상황 및 복원력과 관련하여 그동안 가계부채, 부동산 문제 등이 주요 관심 사항이었으나, 앞으로는 기업부문의 리스크에 보다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나타내었음.

다른 일부 위원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제금융 시장과 국내시장 간 동조성 및 연계성이 강화되었다고 언급하면서, 스트레스 테스트 모형에 금융기관의 대차대조표를 통한 대외충격의 파급경로를 세밀하게 반영할 경우 결과에 대한 신뢰성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음.

아울러 일부 위원은 중소기업 중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인 기업의 비중이 50%에 가까운 상황에서도 중소기업대출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중소기업대출 증가의 세부 내역 및 관련 리스크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하였음.

한편 일부 위원은 부동산금융 익스포저에 대한 분석과 관련하여, 현재 상황에 대한 보다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국가간 비교가 가능한 지표들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나타내었으며, 다른 일부 위원은 이번처럼 기존에 다루었던 주제를 다시 분석

하는 경우 선행 분석의 주요 내용과 새로운 분석의 차별성을 언급하는 등 연구의 연속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다른 일부 위원은 최근의 미분양주택 상황과 영향에 대한 분석이 시의적절하였다고 평가하면서, 앞으로는 건설회사 규모별로 경영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등 동 주제에 대해 보다 세부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나타내었음.

또한 일부 위원은 상업용부동산 담보대출에 대한 분석과 관련하여, 최근 국내은행의 상업용부동산 담보대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연체율 등을 고려할 때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안전한 대출로 인식되는 측면도 있으므로 동 대출의 리스크 요인을 보다 종합적인 시각에서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다른 일부 위원은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 서브프라임 모기지(sub-prime mortgage) 연체율 동향을 통해 위기발생 가능성이 예고되었던 것처럼 공실률 등이 선행지표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여러 가지 지표들 간의 연계성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피력하였음.

다음으로 일부 위원은 금융안정 현안 분석 중 연령별 가계부채 상황 및 평가와 관련하여, 고연령층의 부채문제는 고령화 진행 등으로 인해 계속 이슈가 될 수 있는 주제이므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나타내었음.

이와 관련하여 다른 일부 위원은 연령별 가계대출 비중 등을 주요국과 비교해 볼 경우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다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으므로 향후 이러

한 방향으로 연구를 발전시켜나가는 것이 좋겠다는 견해를 밝혔음. 또한 다른 일부 위원은 고연령층 가계부채의 누증요인을 분석할 때 인구고령화 효과를 통제하고 여타 요인의 기여도를 보다 세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제시하였음.

한편 일부 위원은 국내 수익률 추구 동향 및 잠재리스크 점검과 관련하여, 수익률 추구 투자의 절대 규모보다는 금융기관 총자산 대비 비중 등 상대적 규모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또한 주요국과 달리 회사채 시장이 우량채권 위주로 형성되어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위험추구 행태가 은행의 중소기업대출 확대 등으로 나타나고 있을 가능성이 크므로 관련 동향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덧붙였음.

이와 관련하여 다른 일부 위원은 저금리 기조 장기화에 따른 수익률 추구는 앞으로도 추가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주제이며,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나타내었음. 특히 새로운 현상이 발생할 때 부정적 영향과 긍정적 효과가 함께 나타나게 되므로 외국 사례 등을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첨언하였음.

관련부서에서는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보고서의 내용을 수정·보완하였다고 설명하였음.

이와 같은 관련부서의 보고 후 본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다음과 같음.

일부 위원은 금융안정보고서가 광범위한 주제에 걸쳐 시의적절하고 유익한 분석내용을 수록하고 있는 만큼 동 보고서의 활용도를 보다 높이기 위한 방안에 대해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나타내었음.

다른 일부 위원은 앞으로 금융안정 상황에 대한 당행의 평가와 메시지를 보다 분명하게 드러냄으로써 금융안정보고서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였음. 이러한 맥락에서 금융안정 상황에 대한 당행의 관점(view)을 연속성 있게 가져가는 내부 프로세스를 정비·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견해를 밝혔음. 아울러 우리나라의 금융안정 상황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금융안정 정책에 대해서도 당행의 입장을 정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덧붙였음.

### 3. 경제일지

#### (1) 통화·금융·재정

1.22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금융위원회, 「합리적이고 투명한 은행권 대출금리 산정을 위한 개선방안」 마련<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정보제공 및 내부통제 강화) 대출금리 산정내역서 제공, 대출금리 비교공시제도 개선, 대출금리 임의변경 시 내부승인절차 신설 등</li><li>○ 가산금리 구성항목 주기적 재산정, 새로운 잔액기준 COFIX 도입('19.7월부터 시행) 등</li></ul></li></ul>
1.24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의결<ul style="list-style-type: none"><li>○ 한국은행 기준금리 현 수준(1.75%) 유지</li></ul></li></ul>
2.28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의결<ul style="list-style-type: none"><li>○ 한국은행 기준금리 현 수준(1.75%) 유지</li></ul></li></ul>
4.12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기획재정부, 「유류세율 한시적 인하분 단계적 환원방안」 발표<ul style="list-style-type: none"><li>○ 5월 6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율 한시적 인하 조치는 8월 31일까지 약 4개월 연장하되, 인하 폭은 종전 15%에서 7%로 축소</li></ul></li></ul>
4.18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의결<ul style="list-style-type: none"><li>○ 한국은행 기준금리 현 수준(1.75%) 유지</li></ul></li></ul>
4.24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정부, 미세먼지 등 국민안전과 민생경제 지원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미세먼지 대응 등 국민안전, 2.2조 원) 미세먼지 핵심 배출원에 대한 투자로 배출량 저감 유도, 마스크·공기청정기 보급 등</li><li>○ (민생경제 지원, 4.5조 원) 수출·투자 부문에 대한 집중 지원</li></ul></li></ul>
5.31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의결<ul style="list-style-type: none"><li>○ 한국은행 기준금리 현 수준(1.75%) 유지</li></ul></li></ul>

- 6.11 ▷ 기획재정부, 「기업상속지원세제 개편방안」 발표
- (사후관리 완화, 불성실기업인 공제 배제) 공제 후 유지의무기간 단축(10년 → 7년), 불성실기업인 공제 배제(사전)·추징(사후)
  - (연부연납 특례 대상 확대) 매출액 3천억 원 미만에서 전체 중소기업으로 대상기업 확대
- 7.2 ▷ 금융위원회, 「취약채무자 특별감면제도」,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활성화 방안」 시행
- (취약채무자 특별감면제도) 사회취약계층은 채무과중도와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채무원금 감면, 3년간 연체 없이 성실상환 시 잔여채무 면제
  - 채무자를 가용소득 수준에 따라 구분하고 장기분할상환, 상환유예, 금리인하 등을 순차적으로 적용
- 7.3 ▷ 정부, 「하반기 이후 경제여건 및 정책방향」 발표
- 내수 및 지역경제 활성화, 대내외 리스크 관리, 사회안전망 강화 등
  - (체질개선과 미래대비) 제조업 업종별 전략 수립 및 4대 선도 신산업 추가 발굴, 인구정책 TF 과제 추진 및 중장기 분야별 심층 전략 수립 등
- 7.18 ▷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의결
- 한국은행 기준금리 25bp 하향 조정(1.75% → 1.50%)
- 7.23 ▷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 모집발행제도 개선
- 중상위기관에 대한 모집혜택을 제고하는 동시에 부진대상기관의 모집 참여를 제한하여 대상기관들의 경쟁입찰 참여 유인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
- 7.25 ▷ 기획재정부, 「2019년 세법개정안」 확정·발표
-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확대, 내국인 면세점 구매한도 확대, 승용차 개별소비세 한시 감면 확대,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제지원 확대 등
  - 일자리·서민 지원 강화, 과세형평 제고, 세무조사 절차상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국제청통계자료 공개 및 과세정보 공유 확대 등
- 8.12 ▷ 국토교통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 개선 추진
-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역 지정요건 완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정효력 적용시점 개선,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 전매제한기간 확대, 택지비 산정절차의 적정성 검토 추진



8.30

▷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의결

○ 한국은행 기준금리 현 수준(1.50%) 유지

▷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을 설비투자·수출 촉진 및 소재·부품·장비 중소기업에 추가 지원

○ 금융중개지원대출을 통해 최근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설비투자 및 수출을 촉진하고 어려움이 예상되는 소재·부품·장비 기업을 지원(5조 원 규모)하는 방안을 마련

9.16

▷ 정부, 전자증권제도 시행

○ 실물증권 존재로 인한 비효율과 불편 해소

- 투자자(실물증권의 위·변조 및 도난 우려 해소 등), 기업(자금조달 소요기간 단축 등), 금융사(실물증권 관련 업무부담과 비용 경감 등), 정부(세금탈루 목적의 실물증권 음성거래 방지 등)

9.20

▷ 금융위원회, 「포용금융 2.0」 추진

○ (햇살론17 공급 확대) 실제 수요가 예상치를 상회하여 공급규모를 2,000억 원에서 최대 4,000억 원으로 확대

○ (금융권 개인부실채권 처리관행 개선) 과도한 추심압박을 통한 회수극대화 추구 관행 개선, 연체 이후 채무부담 한정 원칙 등 확립

10.16

▷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의결

○ 한국은행 기준금리 25bp 하향 조정(1.50% → 1.25%)

11.13

▷ 금융위원회, 노후대비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인구정책 TF」 논의결과 발표

○ 가입연령을 낮추는 등의 방식으로 가입대상을 확대하고 취약 고령층에 대한 주택연금 지급액을 확대, 퇴직연금 제도 도입 의무화 등

○ 세대별 맞춤형 지원을 통한 가입 유도, 시장경쟁 촉진으로 개인연금 수익률 제고

11.29

▷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결정

○ 한국은행 기준금리 현 수준(1.25%) 유지

- 12.10 ▷ 국회, 2019년 예산 확정
- 정부안 대비 총수입 및 총지출 각각 0.2조 원 및 1.2조 원 감소
    - 예산 축소: 보건·복지·고용(-1.0조 원), 일반·지방행정(-1.5조 원) 등
    - 예산 확대: SOC(+0.9조 원), 농림·수산·식품(+0.5조 원) 등
  - 관리재정수지 적자 0.6조 원 개선, 국가채무 0.4조 원 감소
- 12.12 ▷ 금융위원회,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개선방안」 확정
- (투자자 보호 강화) 공모규제 회피사례 발생을 철저히 차단하고 고위험 금융상품 규제 체계를 강화하는 등 투자자 보호장치를 대폭 강화
  - (금융회사의 책임성 확보 및 감독 강화)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기준을 강화하고 금융당국의 상시 감시·감독 기능을 강화
- 12.16 ▷ 정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
-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담보대출 LTV 추가 강화, 시가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 구입용 주택담보대출 금지, 사적보증의 전세대출보증 규제 강화 등
  - 종합부동산세 세율 상향조정, 공시가격 현실화 등
  -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확대,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 확대 등
- 12.17 ▷ 국토교통부,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 발표
- 고가공동주택 공시가격 조기 현실화, 공시가격에 2019년 중 시세변동분 충실히 반영 등
  - 공시가격 산정기준 및 절차 개선, 조사기관의 책임성과 검증체계 대폭 강화, 공시가격 산정시스템 개선
- 12.19 ▷ 정부, 「2020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 주력산업 및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조기 확보를 통한 혁신동력 강화,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자원 확보 및 분야별 구조혁신을 통한 경제체질 개선
  - 수요자·사회수요 맞춤형 일자리 지원 등 포용기반 확충, 인구·가구 구조변화 등 미래 도전요인에 대비한 선제적 투자·준비 본격화
- 12.30 ▷ 국회, 2019년 세법개정안 수정 의결
- (국세징수법) 악의적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감치 적용요건 강화
  - (부가가치세법) 영세 법인사업자에게도 개인사업자와 같이 예정고지·납부제도 적용
  - (주세법) 다양한 형태의 제품(수제맥주제조키트 등)을 「주세법」상 주류의 범위에 포함

## (2) 무역·외환

- 3.4      ▷ 산업통상자원부, 「수출활력 제고 대책」 발표
  - 무역금융 235조 원 지원 및 8개 무역금융 지원 프로그램(35.7조 원) 신설·확대
  - 중소·중견 기업 4만 2,273개 사의 수출마케팅에 3,528억 원 지원
  
- 4.11     ▷ 산업통상자원부, 「수출마케팅 지원 강화 방안」 발표
  - 「통합 글로벌 파트너링 매칭 시스템」 구축을 통한 바이어 정보 적시 제공, KOTRA 및 유관기관의 해외 바이어 DB 통합 등 추진
  - 부처 및 지자체별 분산 운영 중인 해외전시회와 무역사절단 통합·대형화
  - 전문무역상사 지정요건 완화, 전문무역상사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 4.13     ▷ 한국은행, UAE 중앙은행과 통화스왑 재계약 체결
  - 주요 계약 내용은 기존(6.1조 원/200억 디르함까지 상호 자금지원)과 동일
  
- 9.17     ▷ BIS, 「전세계 외환 및 장외파생상품 시장 조사(거래금액 부문)」 결과 발표
  - 국제결제은행(BIS)은 전세계 외환 및 장외파생상품 시장의 규모 및 구조에 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보수집을 위해 전세계 중앙은행들과 3년마다 시장조사를 실시
  
- 12.5     ▷ 한국은행, 「한국·헝가리 수교 30주년 기념 컨퍼런스」 개최
  - 수교 30주년을 기념하여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한국은행-헝가리 중앙은행 공동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양국 경제 상황, 중앙은행 간 교류협력 방안 등을 논의

### (3) 산업·고용 및 기타

- 1.3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 유출 근절대책」 발표
- 국가핵심기술 보유기업 대상 해외 인수·합병 사전승인제 도입, 산업기술 유출 시 손해액 3배 이내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 법원이 피해액 산정 필요 자료를 유출자에게 제출명령 할 수 있는 권한 도입,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 추진
- 2.28 ▷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 발표
-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결정체계 이원화
    - 구간설정위원회 : 상시적 통계분석 및 모니터링을 통한 심의구간 설정
    - 결정위원회 : 심의구간 내 최저임금안 결정
  - 최저임금 결정기준을 추가·보완하여 노동자 생활보장과 고용·경제 상황을 균형있게 고려
- 4.24 ▷ 산업통상자원부, 「조선산업 활력제고 방안 보완대책」 발표
- 중형선박 RG 보증 규모 확대(기존 1,000억 원 → 2,000억 원), 용접·도장 등 생산인력 및 친환경·스마트 설계인력 중심의 전문인력 양성(2019년 2,263명) 지원
  - LNG 추진선 등 친환경 시장 확대에 대비한 중소기업 역량 강화(모듈화 기술 개발, 대형조선사 기술지원 등), 중소 조선업체에 R&D 60억 원 지원
- 6.26 ▷ 정부, 「물류산업 혁신 방안」 발표
- 법·제도 정비, 글로벌 물류시장 진출 지원, 택배터미널 등 물류인프라 공급 확대, 첨단 기술에 대한 투자 강화, 일자리 매칭·창업 활성화
  - 위수탁제도, 다단계 관행, 대형 물류사 불공정 행위 등 병폐 개선
- 8.4 ▷ 중소벤처기업부, 추경예산 1.2조 원으로 소상공인 자금 지원 시행
-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해 반도체·디스플레이 업종 등 피해 예상 중소 벤처기업대상 기술개발(217억 원) 및 장비운영·시설(500억 원) 지원
  - 미세먼지 저감 기술개발(1,000억 원), 강원지역 산불 피해 소상공인 경영 정상화(305억 원) 등

- 8.5
  - ▷ 정부,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 발표
    - (100대 품목 조기 공급안정성 확보) 수입국 다변화 강력 추진, 국내 생산 확대를 위한 애로 해소, 핵심기술 조기 확보
    - 수요·공급기업 및 수요기업 간 건강한 협력 모델 구축, 경쟁력 위원회 및 특별법 전면 개편 등 강력한 추진체제 확립
  
- 9.10
  - ▷ 정부,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대책」 발표
    - 소상공인의 온라인 시장 진출 촉진, 골목상권 전용 상품권 확대(2019년 4.5조 원 → 2020년 5.5조 원)
    - 5조 원 규모 특례보증 등 금융지원 확대, 자영업자 실업급여 확대 등 영세소상공인 경영개선 및 재기지원 확대
  
- 9.18
  - ▷ 정부, 「중소기업 선제적 사업구조 개선 지원방안」 마련
    - (상시적 사업전환 촉진) 사업전환계획에 필요한 승인요건 완화, 혁신성장분야 사업전환 기업에 사업전환 자금 공급 등의 지원 확대
    - 컨설팅 및 금융지원 연계 제공 등을 통해 성장 잠재성이 높은 기업의 경영악화 방지, 회생 기업의 경영정상화 및 재기 지원
  
- 11.2
  - ▷ 국토교통부, 「국토교통 일자리 로드맵 2.0」 발표
    - (고용 선순환, 신산업 핵심인재 육성) 지역발전투자협약 체결·지원,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 등 지역투자 확대, 국토교통 R&D 강화, 혁신펀드 도입 등
    - (양질의 일자리 및 안전 일자리 창출, 전문가 양성) 표준시장단가 현실화, 적정임금제 도입, 노후 기반시설 안전 강화를 위한 투자 촉진 등

## 4. 부문별 담당 부서 및 집필자

연차보고서 세부 부문	집필자	
<b>I. 한국은행 개요</b>		
1. 연혁 및 설립목적	통화정책국	장근호
2. 조직		
가. 금융통화위원회	금융통화위원회실	정성환
나. 집행간부 및 감사	비서실	박으뜸
다. 부서조직 및 소관업무	기획협력국	천재정
<b>II. 경제 동향</b>		
1. 실물경제		
가. 세계경제	조사국	박병걸, 임준혁
나. 국내경제	조사국	김주완, 김민우
	지역협력실	이상아, 노현주
		구병수
2. 금융·외환시장		
가. 국제금융시장	국제국	한재찬, 전은총
나. 국내금융시장	금융시장국	이은지
	국제국	선진산
<b>III. 업무 현황</b>		
1. 중기전략	기획협력국	최용운
2. 통화신용정책		
가. 물가안정목표	조사국	이지원
	통화정책국	최연교, 이예지
나. 기준금리	통화정책국	최연교, 이예지
다. 여수신	통화정책국	조수영
	금융결제국	박미숙
라. 공개시장운영	금융시장국	장순복, 최희원
마. 통화정책 커뮤니케이션	통화정책국	최연교, 이예지
	금융통화위원회실	정성환
3. 금융안정		
가. 거시건전성 분석·평가	금융안정국	이지선
나. 외환부문 거시건전성정책	국제국	한재찬, 전은총
다. 중층적 금융안전망 확충	국제협력국	안성희, 장동산
라. 금융불안 요인 발생 시 비상대응체제 가동	금융시장국	이은지
4. 발권		
가. 화폐 발행	발권국	김정남, 김민서
나. 화폐 유통	발권국	서지연, 이승엽
다. 국내외 협력	발권국	이승엽

**연차보고서 세부 부문**

**집필자**

5. 지급결제		
가. 한은금융망 운영	금융결제국	정혜림
나. 감시 및 리스크 관리	금융결제국	정혜림
다. 지급결제제도 개선	금융결제국	정혜림
라. 지급결제 관련 국제협력	금융결제국	정혜림
6. 외환 및 국제협력		
가. 외국환	국제국	한재찬, 전은총, 선진산
나. 외화자산 운용	외자운용원	최지원
다. 국제협력	국제협력국	안성희, 장동산
7. 조사통계		
가. 조사연구	조사국	이용대
	경제연구원	조은아
	지역협력실	조영숙
나. 통계	경제통계국	정진우, 유현경
8. 국고 및 증권		
가. 국고	국고증권실	우승준
나. 증권	국고증권실	박경호
다. 기금관리	국고증권실	박경호
9. 대외 커뮤니케이션		
가. 국민과의 소통 확대	커뮤니케이션국	김민정, 박기범, 이가영
나. 대국민 경제교육 활동 강화	경제교육실	이보라

**IV. 경영 상황**

1. 조직 운영		
가. 조직 체계	기획협력국	천재정
나. 조직 운영방식	기획협력국	천재정, 김은숙, 이영호
	커뮤니케이션국	신혜원
다. 비전 2030 수립 추진	기획협력국	최용운
라. 교육훈련	인재개발원	조남현
마. 인력 운영	인사운영관	안지훈
바. 부패방지 및 청렴문화 확산	인사경영국	박주하
사. IT시스템 개선·확충	전산정보국	김은정
아. 통합별관 건축 추진	별관건축본부	민호식
2. 재무 현황	기획협력국	배문선

**부록**

1. 한국은행 조직도	기획협력국	천재정
2. 금융통화위원회의 주요 의결 및 논의사항	금융통화위원회실	정성환
3. 경제일지	조사국	김현희
4. 부문별 담당 부서 및 집필자	커뮤니케이션국	김민정

<b>보고서 작성총괄</b>	커뮤니케이션국	김봉기, 신세용, 김민정
-----------------	---------	---------------